

# 어떤 환경이든 골프에 집중할 수 있어야



선수는 소음을 탓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타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동반자가 내는 헛기침이나 앞뒤에서 지르는 함성 등에 '삐' 흔들리는 '심약한' 골퍼가 있다면 피닉스 오픈을 관전해 보라고 추천한다. AP\_연합뉴스

**프**로골프대회 관전의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은 선수가 샷을 할 때 절대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티샷 때릴 때와 퍼팅할 때의 '정숙'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티잉 그라운드와 그린 주변에 경기진행요원이 특히 많이 배치돼 '조용히'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갤러리들이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도 그래서다. 특히 카메라 셔터와 휴대전화 소리는 절대 금기다. 아예 카메라 소지를 금지하는 대회도 있고 휴대전화를 대회 주최측이 맡아 놓기도 한다.

아마추어 골퍼끼리도 동반자가 샷을 할 때에는 소음을 내지 않는 것이 에티켓의 기본이다. 프로골프대회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또 하나 있다면 선수의 샷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이나 야유를 보내지 않는 것이다. 물론 주말 골퍼끼리도 야유를 보내는 것은 큰 실례가 될 수 있으므로 마땅히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원칙과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PGA 투어 대회가 있다. 지난 2월6일 끝난 피닉스 오픈은 골프장이 아니라 마치 축구경기장 같은 분위기에서 치러진다. 대회가 열리는 스크즈데일TPC는 일종의 해방구다. 관중은 마치 골프 에티켓을 모조리 잊어버린 듯 행동한다. 술을 마시고 특정 선수를 겨냥해 독설에 가까운 야유도 거침없이 날린다. 그런데도 관중은 어마어마하게 몰린다. 하루에 20만 명에 육박하는 관중이 들어찬다.

특히 16번 홀(파3, 162야드)은 선수들에게는 악몽이다.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린까지 사방이 모두 스탠드로 둘러싸인 16번 홀은 그야말로 농구장을 방불케 하는 소음으로 가득하다. 스탠드는 최대 2만 명의 갤러리를 수용할 수 있다. 미국 프로농구(NBA) 경기가 열리는 대형 체육관보다 더 큰 규모다. 스탠드를 채운 관중은 맥주에 취한 채 함성과 박수, 그리고 함창으로 선수들 기를 죽인다. 그린에 볼을 올리지 못하는 선수에게는 거의 욕설에 가까운 야유가 쏟아진다.

### 농구장 같은 소음 천지에서 치러지는 피닉스 오픈

피칭 웨지나 9번 아이언으로 티샷을 때리는 16번 홀은 그다지 어려운 홀이 아니지만 선수들의 실수가 자주 나오는 것은 이런 독특한 환경 때문이다. 선수들은 이곳에서는 샷 실력을 겨루는 게 아니라 심장 크기를 쟁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요즘은 아예 이런 분위기에 주눅이 들기는커녕 마케팅 기회로 삼는 '간 큰' 선수들도 나온다. 벤 크레인과 버

바 왓슨은 티잉 그라운드에서 랩 공연을 펼쳐 관중들의 환영을 받았다. 개성적인 패션으로 늘 눈길을 끄는 '영건' 리키 파올러는 티샷을 마치고 그린까지 걸어가는 동안 미리 준비해 온 모자를 스탠드로 던져 주는 이벤트를 펼쳤다.

이런 16번 홀의 떠들썩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견뎌 내지 못하면 피닉스 오픈 우승은 꿈도 꿀 수 없다. 더구나 최종 라운드 16번 홀에서 타수를 까먹는다면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올해 대회 우승자 카일 스탠리도 최종 라운드 때 16번 홀에서 큰 위기를 맞았다.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섰을 때 스탠리는 스펜서 레빈과 공동 선두였다. 안 그래도 스탠리는 딱 7일 전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5타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역전패를 당해 '간이 작다'는 비아냥거림을 받았던 아픔이 있는 선수.

### 프로든 아마든 심약해서는 제 실력 못 낸다

피칭 웨지를 잡고 친 티샷은 그린 왼쪽으로 크게 벗어났다. 긴장한 나머지 몸통 회전이 덜 된 상태에서 스윙을 한 탓이었다. 관중석에는 야유가 쏟아졌다. 설상가상으로 그린 밖에서 친 칩샷은 홀을 지난 내리막을 타고 3m나 굴러 내려갔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온 우승 기회를 또 한 번 허망하게 날려 버릴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머리가 아플 만큼 큰 소음 속에서도 스탠리는 3m 퍼트를 집어넣고 파 세이브에 성공했다.

"그런 엉터리 티샷이 어디에 있냐?" "넌 새가슴이야!" 등 등 정신없이 놀려 대던 관중이 이번에는 우레 같은 박수와 함께 "잘했다" "우승해라" 같은 격려의 고함을 내질렀다. 스탠리는 남은 두 홀을 무사히 파로 막아 내고 1타차 우승을 거뒀다. 16번 홀의 위기를 넘어서지 못했다면 맛보지 못할 감격이었다. 일주일 전 평생 잊지 못할 뼈아픈 역전패의 아픔도 깨끗이 씻을 수 있었다.

동반자가 내는 헛기침이나 앞뒤 팀에서 지르는 함성 등에 샷이 흔들리는 '심약한' 주말 골퍼가 있다면 매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열리는 피닉스 오픈을 관전해 보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다. 특히 16번 홀에서는 나홀 내내 고정 카메라로 선수들의 티샷과 칩샷, 퍼팅을 낱알이 중계해 주므로 선수들의 솔한 실수를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다. 선수는 소음을 탓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타수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좋은 기회다. 

권훈 LA 특파원 khoon@yna.co.kr